

리프(23-1)-3주차(개인의 취향)-활동지

생각을 열어주는 글

“개인의 취향”

나의 취향을 맘껏 발휘해 나만의 기쁨을 누리보자.

취향은 “자기만의 경험을 통해
진정 좋아하는 것,
재미있는 것,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며
영혼의 구별 짓기다.

브랜드나 기업의 광고에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의 영혼이 깃든 취향이야말로
독특한 나를 표현해주는 것

‘내 영혼엔 내 취향이 있을까?’, 한겨레 신문, 2013. 4.26

나는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욕구다,
그리고 내 취향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것을 다른 이에게 말하면서부터 나는 즐거워진다.

진정 좋아하는 것은
내가 ‘그것’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것이다.
‘그것’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나’가 된 것.
인간은 모두 개체(individual)이기 때문에 타자(他者)와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이 개체성의 원리를 극복하고 타자를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도취’다.

도취는 개체의 자의식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것.
철학자 니체는 이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 불렀다.

내가 좋아한 음식, 노래, 영화, 꽃, 나무, 시, 가수, 배우...
그 만남에서 내가 느낀 것,
나에게 기쁨을 준,
아름다움을 느낀
‘그것’을 말해보자.



활동지

내가 좋아하는 것

아래 칸 하나하나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써보세요.

색	노래	음식	게임 (모바일 및 인터넷)
꽃	나무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	스포츠	드라마	영화
시간	장소	인물 (현재 살아 있는 사람)	위인
시(詩)	소설	우리나라의 도시	만화

*좋아하는 것 “안”에 담긴 것은?

*나의 독특성은?